

교육 실습에서 국어과 예비 교사의 수업 역량 성장 연구

류보라(제1저자) 당곡고등학교 교사

백혜선(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서론

예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되어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중 교육 실습은 현장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교육 실습은 강의실에서의 지식 습득을 넘어 교실에서의 실행을 통해 현장을 배우는 과정이다. 교육 실습은 예비 교사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Applegate, 1986; Tardif, 1988; 박정서, 2012 재인용). 교육 실습은 예비 교사가 교수방법,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교육 일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교육 실습에서 핵심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경험해 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비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 대학에서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적용하고 경험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어 교사의 수업 역량은 교실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 맥락에서 국어 수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양성 교육에서 교육 실습은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적 능력을 배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교육 실습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실습 현장에서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교육학이나 사회과학이나 과학과에서 이루어진 연구물들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교육 실습의 효과 및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또한 예비 교사들의 수업 실행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 예비 교사에 집중되어 초등과 다른 학교급의 특성과 교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 중등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교육 실습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교육 실습에서 수업 실천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국어과 예비 교사가 교육 실습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떠한가?
- 국어과 예비 교사가 교육 실습 과정에서 수업 역량과 관련하여 체험한 내용은 무엇인가?
- 국어과 예비 교사가 교육 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국어과 예비 교사의 수업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육 실습 관련 연구

이 연구는 교육 실습에서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수업 실행과 인식에 주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육 실습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교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 실습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의 연구 내용으로는 교육 실습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에 대한 연구(강경희, 2009; 안미리·조인진, 2004), 예비 교사들의 교육 실습에 대한 인식 연구(김정현 외, 2009; 정혜영, 2004), 교육 실습을 통한 예비 교사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연구(박성혜, 2007; 정미재·정제영, 2012; 천

은숙, 1995)가 있다. 교육 실습 대상 학교급에 따라 유치원(염지숙, 2003), 초등(이혁규·심영택·이경화, 2003; 추갑식, 2015), 중등(김필성·강현석, 2014; 서재복, 2010; 정한호, 2013)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교육실습생 전체가 아닌 교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학과(강경희, 2009; 박철용·민희정·백성혜, 2008), 사회과(설규주, 2011; 박인옥, 2007; 박정서, 2012), 체육과(윤현수, 2012, 정호진, 2012) 등으로 교과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과에서도 교사 교육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비 교사 단계에서 실시되는 교육 실습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천택·김은경(2009)에서는 교육 실습을 하는 교육대학교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수업 저널 쓰기의 적용 사례를 탐구하였다. 수업 저널 쓰기에서 실습생들은 국어과 수업 계획과 실행에 대한 반응에서 국어 교과 특성보다는 일반적인 수업 기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경화(2008)에서는 초등 예비 교사들이 교육 실습 기간에 작성한 수업 실습 일지에 나타난 국어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 실습을 통한 국어 수업의 의미로는 초등 국어 교수학적 내용 지식의 학습과 실천적 지식의 중요성 인식, 구성주의 관점의 초등 국어 수업 지향,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재 분석 및 탐구, 자신의 초등 국어 수업에 대한 반성적 점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초등 국어 교과의 특성 이해 등을 밝히고 있다. 이 두 연구는 모두 교육실습생이 작성한 수업 저널이나 교생 일지를 분석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정혜승(2011)에서는 여섯 명의 초등 예비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비 초등 교사의 정체성 인식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비 교사들은 교육 실습 과정에서 외부자, 보여주는 자, 회의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교육 실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초등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은 그 발달 단계에 있어 다르므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등학교 교육

실습 현장에서 예비 국어 교사들의 수업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교사의 역량

역량(competence)을 조직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할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학교 현장에서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미재·정제영, 2012). 교사가 학교에서 맡는 주요 직무는 수업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이고, 이외에도 학교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황은화·백순근(2008)에서는 교원의 핵심역량을 교수 역량(teaching competence)과 교원 역량(teacher competence)으로 구분하였고, 정미재·정제영(2012)에서는 수업 역량과 직무 역량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수업 역량은 수업에 필요한 교과 지식 및 연구 활동, 실제 수업을 위한 수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고, 직무 역량은 학급지도,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직무는 수업이며, 따라서 수업 역량이 교사의 역량에서 가장 본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교사의 수업 역량은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지식, 교수·학습 지식, 수업의 설계와 실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비 교사들이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교사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 실습은 예비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접하며 실천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는 기회이다. 그렇다면 교육 실습에서 국어과 예비 교사들은 수업 역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실습 과정이 교사로서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 예비 교사가 교육 실습 과정에서 수업 역량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교육 실습 과정에서 국어과 예비 교사의 변화와 어려움을 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실습에 참여한 4인의 교육실습생¹과 이들의 지도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 학교의 학교급, 소속 학교, 성별 등을 고려하여 최대변인표집이 되도록 의도 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	성별	학력	실습 학교	실습 학년	실습 기간	지도교사
박 교생	남	교육대학원 재학	A중학교	중 1	2015. 5	A교사
서 교생	여	교육대학원 재학	B고등학교	고 1	2015. 4	B교사
정 교생	여	사범대학 재학	C고등학교	고 1	2015. 5	C교사
최 교생	남	사범대학 재학	C고등학교	고 1	2015. 5	

연구 참여 학교는 3개교로 사전에 학교장과 지도교사, 교육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가 실시되었다. 각 학교의 교육 실습 프로그램은 2015년 4월과 5월 중에 4주간 진행되었다. 학교별로 교육 실습 프로그램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첫 주는 실습 안내와 수업 참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지도안 작성과 수업이 실시되었다. 수업 참관 횟수와 수업 횟수는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었다. 자료 수집 일정은 다음 <표 2>와 같이 진행되었다.

1 이하 ‘교생’이라는 용어로 사용함.

표 2. 자료 수집 일정

이름	수업 관찰	교생 면담	지도교사 면담
박 교생	2015.05.22 2015.05.26	2015.05.26	2015.05.26
서 교생	2015.04.13 2015.04.17	2015.04.23	2015.04.23
정 교생	2015.05.18 2015.05.28	2015.05.28	2015.05.28
최 교생	2015.05.19 2015.05.26	2015.05.26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교육 실습에 참여한 4명의 교생들을 대상으로 관찰 자료, 면담 자료,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찰 자료는 교생들이 수행한 총 8회의 국어 수업과 수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수업 관찰은 교생이 진행하는 수업의 초기와 후기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격을 두어 각 2회씩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통해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업 관찰 중 궁금한 점은 관찰 일지에 기록하여 개별 면담에서 질문하였다. 교생의 수업 과정은 모두 오디오로 녹음하였다.

관찰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교생들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2회의 수업 관찰이 모두 끝난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두 연구자는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 실습에 대한 인식, 국어 교과와 교사에 대한 인식, 교육 실습 중 수업 수행에 대한 인식, 교육 실습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을 범주화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실습 학교 내의 빈 교실이나 인근 카페에서 1시간 내외로 실시하였고 모두 녹음하였다. 예비 교사와의 면담이 끝난 후 해당 교생의 지도교사와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지도교사에게는 ‘교생 지도 중점 내용, 교생의 역량 변화, 교생 지도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인적 정보’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고 이들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교육 실습 일지, 수업 참관 일지, 교수학습지도안 등의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3. 수집한 자료의 종류와 분석 내용

수집한 자료	분석 내용	자료의 사용
교과서 및 교수학습과정안	교과서와 교생의 수업 계획 분석	수업 관찰의 보조 자료로 사용
수업 관찰 1	수업의 실행 양상 분석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사용
현장노트 작성 1	교실 정보 분석	면담의 보조 자료로 사용
지도교사의 지도 관찰 1	지도교사의 지도 내용 분석	면담의 보조 자료로 사용
수업 관찰 2	수업의 실행 양상 분석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사용
현장노트 작성 2	교실 정보 분석	면담의 보조 자료로 사용
지도교사의 지도 관찰 2	지도교사의 지도 내용 분석	면담의 보조 자료로 사용
교생 면담	교육 실습 및 수업 실행에 대한 인식 분석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사용
지도교사 면담	지도 내용 및 교생의 변화에 대한 면담	분석의 보조 자료로 사용
교생 일지 및 수업 참관 일지	수업 실행 및 관찰에 대한 반성적 사고 분석	분석의 보조 자료로 사용

면담을 마친 후 녹음된 면담 자료를 전사하여 연구자들이 반복해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도출하여 코딩하였다. 두 연구자가 계속 자료를 읽어가면서 도출한 범주를

정교화하여 의미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들은 병합하고, 해당 범주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범주를 도출하여 축 코딩을 하였다. 이러한 귀납적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서 ‘실습에 대한 인식’, ‘실제 수업의 체험’, ‘실습의 어려움’, ‘교생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 4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귀납적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의 도출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삼각검증법과 구성원간의 검토, 연구자의 조언을 받는 절차를 실시하였다. 우선 자료 수집과 분석의 차원에서는 관찰, 면담, 문서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활용하는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1명의 교생에게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내용의 왜곡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받았으며, 연구에 관여하지 않으나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조언을 자료 분석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반영하였다.

IV. 연구 결과

교생 4인의 교육 실습에 대한 자료들에서 추출한 중심어는 ‘교생의 수업 역량 성장’이다. 교생들의 경험을 수업 역량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며, 교육 실습에 대한 인식, 실제 수업의 체험, 교육 실습의 어려움, 교생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 이렇게 네 범주로 정리하였다.

1. 교육 실습에 대한 인식

교생들이 실습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크게 ‘부담’과 ‘기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실습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실습 전 준비 과정이 미흡함이 주된 이유였고 대학 4학년 시기에 한 달 동안의 실습을 마치고 수업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과제 수행 등

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실습 과정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이들의 기대감은 그동안의 강의가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학교 속으로 들어가 실제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실제로 가르치면서 일단 해 본다는 것, 그러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본다는 것이 자체가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꼭, 꼭 ‘이론이랑 다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론만 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느낌들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네, 신기했던 거 같아요. (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내가 혹시나 교사에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뭐 결론은 아닌 걸로,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정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최 교생의 경우 학생들을 직접 접하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응을 본다는 것에 대해 신기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는 경험은 부담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정 교생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교직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교생들은 실습과정에 대해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임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두 경우 모두 한 달이라는 교육 실습 기간은 교생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시간이었다.

2. 실제 수업의 체험

교생들의 수업 체험은 참관 과정과 수업 시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업 역량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다. 참관 과정은 교생 자신들이 실제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면서도 수업과 관련된 역량들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되

고 있었다. 서 교생의 경우 수업을 참관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가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좀 가벼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내가 수업을 해 봐도 한두 번 해보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그렇게 까지 진지한 자세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아 그냥 내가 고등학교 때 수업 들었었지, 이런 거 나왔었나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수업 전체를 생각하게 되구 도입과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냐를 되게 염두에 두면서 봤었구요, 선생님들이 말을 이어갈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애들이 집중을 안 할 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애들을 격려하시는지 그런 기술적인 면들을 자꾸 불려고 했던 거 같아요. (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서 교생의 경우 처음 참관을 할 때에는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학생으로 수업을 듣는 자세로 참관을 하게 된다.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을 실제 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들을 배우기 위해 참관을 하게 되자 그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수업 참관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교생은 참관을 하며 여러 국어 교사들이 사용하는 발문을 종합하여 자기화하며 발문을 하는 방법도 배우기도 하였다. 수업에서 교육 실습을 하며 실제 수업을 하기 전에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활동이 효용이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업 참관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정미재·정제영, 2012).

실습을 하면서 교생들이 많이 배우는 부분은 학습자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부분에서 발생하게 된다. 학습자들의 흥미, 수준을 알기 위해 교생들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업 참관, 수업 시연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참관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즐거워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나.’ 약간 그런 걸 많이 중점을 둔 거 같아요, 실제로 보면. ‘어, 어떤 수업에서 애들

이 제일 반응이 좀 좋았고, 집중을 좀 많이 했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활동을 넣은 수업이기도 하고, 교사가 활동을 뭐 넣었다거나 애들이 하는. 하여튼 예를 들어 몸으로 표현하기, 풀을 몸으로 표현하기 이런 활동 넣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조금 즐거워하는 게 있더라구요. (정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대학교를 와서 교과서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내용들을 잘 공부했고, 그것도 전공에서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뻘한 내용인데, 이거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가 제일 궁금했었어요. (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정 교생의 경우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반응과 집중을 유도하는 수업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 교생도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수업의 기술’을 알고 싶어 했다. 교생이 언급한 수업의 기술은 곧 수업 역량으로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능력들이며 실제 교실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기술들이다. 이처럼 수업 역량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동적인 교실의 상황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

교육 실습에서 실제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는 경험은 4명의 교생 모두에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최 교생의 수업 사례를 제시하면, 참관 1회차 수업(2015. 5. 19.)에서 최 교생은 문학 단원에서 ‘매밀꽃 필 무렵’을 읽고 학생 개별로 학습활동을 하도록 시킨 후 질문을 했다. 학생들이 대답하지 않고 교실에 정적이 흐르자 최 교생은 학생들의 발표는 포기하고 교생 본인이 학습활동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내용을 설명하였다. 최 교생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소감을 교생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단 원 명	문학의 갈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내용 및 소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에 따라 수업 진행, 지도에는 문제없어 · 학습자들이 대부분 자는 상태, 어떻게 깨워야 하는가? · 교사 주도 수업이 되어 버림. 너무 익숙해진 듯 · 2-3 학습활동에서 시점 언급을 못함->다음 수업에 반영 · 읽기 진행할 때 문제가 있으면 1명을 계속해서 시켜도 ... -> 학생이 참여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그림 1. 최 교생의 5월 19일 교생 일지 중 일부²

<그림 1>처럼 최 교생은 자신의 수업에서 교사 주도 수업, 자는 학습자, 학생의 참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교생의 수업이 끝난 후 C지도교사는 수업을 진행한 최 교생과 참관한 정 교생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C교사: 조별 활동을 다시 한 번, 000선생님 수업에서는 조별활동을 한 번 활용해 봐요. 4인 1조로 해 가지고 앞에 있는 애가 뒤로 돌아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나머지는 4명이 구성이 안 되면 짝궁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 지정을 하지 말고, ‘누구 발표해 봐’ 이건 피동적인거지. 자발성을 유도하려면 ‘니네들 토의했니? 발표할 조?’ 지네들이 발표하게끔 만드는 유도가 필요해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체조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수업 속에서 자발성을 이끄는, 수업 시간에 정적을 없애는 방법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최 교생의 C지도교사의 지도 내용에서)

C교사는 조 구성 방법,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 방법에 대해 상

2 실제 최 교생이 작성한 교생일지는 다음과 같으나 화질의 문제로 옮겨 적은 것으로 대신함.

단 원 명	문학의 갈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내용 및 소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에 따라 수업 진행, 지도에는 문제없어 · 학습자들이 대부분 자는 상태, 어떻게 깨워야 하는가? · 교사 주도 수업이 되어 버림. 너무 익숙해진 듯 · 2-3 학습활동에서 시점 언급을 못함 -> 다음 수업에 반영 · 읽기 진행할 때 문제가 있으면 1명을 계속해서 시켜도 ... -> 학생이 참여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참관 2회차 수업(2015. 5. 26.)에서 최 교생은 학습활동을 할 때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학습활동을 하도록 수업 방식을 변경하였고, 교생 혼자 설명하던 지난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 외에도 C교사는 교과서의 삽화를 활용하여 소설의 분위기와 주제를 파악하기, 공간 이동에 따른 갈등 정도를 그린 그래프를 학습활동과 연계해 학생들의 흥미 높이기 등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고 정 교생과 최 교생은 이를 다음 수업에 반영하였다.

교생들이 수업을 실제 실행할 때 학습자 요인과 함께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전체 흐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발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이러한 고민이 많은 이유는 국어 수업이 타교과에 비해 다양한 교재 및 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언어적 상호작용이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최지현 외, 2007). 따라서 국어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설계, 교사 발문에 대한 지도가 교생 실습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업 역량에서 많은 성장을 보인 교생은 서 교생이었다. 수업의 전체 흐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학습 목표이다. 서 교생은 교육 실습을 시작할 때에는 이러한 역량이 부족했으나 실습 과정을 통해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단원의 목표 전달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배웠거든요.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목표대로 단원을 알려주는 것들, 이 단원에서 내용 파악보다는, 제가 했던 단원은 작가의 문체, 기법들이었거든요, 그걸로 문학작품을 보는 거구, 글을 쓰는 거였는데,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내용 파악보다는 단원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 (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서 교생은 수업의 도입과 마무리를 하는 방법, 시간 분배를 어려워 하였고, 수업을 실제 체험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하였다. 교육 실습 기간 동안 이러한 수업 기술을 모두 익히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즉 수업 역량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서 교생은 실습을 통해 이러한 수업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서 교생에 대해 지도교사도 교육과정을 보는 눈, 수업을 목표 중심으로 짜는 능력이 많이 성장하였다고 말하였다.

한 차시의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교생들은 수없이 돌발적인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 못한 상황에서 교생들은 당황하게 된다. 또한 수업 중 교사의 발화는 모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돌발적인 학생의 질문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교실은 매우 유동적인 공간이다. 수업 참관과 실제 수업을 하면서 교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다양한 질문을 한 행동에 대한 서 교생의 설명이다.

제가 준비했던 부분도 있고 즉흥적인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뭘까?” 국어선생님들이 다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처럼은 잘 안 되더라구요. (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서 교생은 교육 실습 전체 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업을 해보기 전과 해본 후, 수업을 해 봤다는 거 자체가 정말 좋은 경험이었구요. 대학원 들어와서 국어교육을 이제 2년 반 하고 있는데 2년 반보다 지금 한 달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교생 실습이 한달 하면서 뭐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대학, 대학원 6년반 한 것보다 더 도움이 됐어요. ... 책으로, 교과교실제 이런 걸 신문에서 소개하는 걸 봤었는데 제가 체험해 보니까 체험한 만큼 와 닿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교생들은 수업을 실제 시연하면서 학습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수업의 전체 흐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어 이들의 흥미, 집중, 참여 유도 등을 위한 수업의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의 방법들은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말 한 마디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업의 기술들을 배우면서 교생들의 수업 역량은 성장해 갔다.

3. 교육 실습의 어려움

교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생 내적 측면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외적 환경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인 어려움은 교생이라는 새로운 위치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혼란에 대해 말한 서 교생의 면담 내용이다.

처음에는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선생님으로서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참관하면서 듣고 있을 때 학생으로서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교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은 ‘햇병아리 초보 교사’(최 교생), ‘반푼이 교사’(정 교생), ‘학생이자 교사’라는 입장(정 교생)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학생의 신분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라는 교생의 위치(position)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며, 이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기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애들 반응을 고려해서, 너희가 좀 무리하는 거 같으면 다른 얘기도 했다가 그래서 다시 와서 수업 진도 나가고, 오늘은 이만큼밖에 못했으니까 다음에 더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진행이 가능하신데, 저희 그게 안 되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10차시 안에 이 모든 두 가지 제재를 다 정해진 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 애들이 이해 하든 못 하든 던지고 본다 ... (정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저는 교안을 짜서 하니까 만약 여기서 진도를 다 못 나가면 교안이 어그러지고, 그럼 다음 교안할 때 또 다시 앞부분에 어떻게 덧붙여야 된다가나, 그런 일단 교안이 정해진 틀이 어그러진다는 그 자체가 교생은 되게 정해진, 짜여진 생활에 맞춰서 위에서 지시 받으며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게 되게 좀 두려운 거 같아요. (정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정 교생은 교생이라는 위치가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시를 따라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 인식은 교생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정혜승, 2011). 따라서 교생이 주체적인 위치에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생의 정체성은 학교 교사들과 교생의 관계, 학생들과 교생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위치를 지우게 되는데 학교 교사들에게는 배우는 입장으로, 학생들에게는 친밀한 관계와 권위를 유지하는 관계 사이에서 위치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 교생의 경우 수업 참관을 하는 과정 중에 학생의 자세에서 교사의 자세로의 전환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실습 과정에서 교생들이 성장하는 바탕이 되면서 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 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환경적인 어려움은 교육 실습이라는 과정의 비체계성, 실습 학교의 준비 미흡, 교생 상호간의 관계, 실습 학교 교사들과 교생의 관계라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발생한다. 참여자들이 실습한 3개 실습 학교에서도 교육 실습을 운영하는 체계가 각기 달랐다. 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 과정 여부, 교생들의 참관 수업 횟수, 수업 실습 시수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라 낯선 장소에서 4주의 과정을 경험하는 교생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당황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생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와서 배우거든요. 와서 교안도 실제로는 와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서로 얘기도 해 보고, 실제로는 많이 참고하는 거는 전에 실제로 교생을 했던 전 교생들이 만들었던 자료들? 이런 거 좀 받아서 한 번 참고하고, 약간 우리들끼리 해결하는 분위기지, 학교에서 막 진짜 교생을 위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주진 않는 거 같아요. (정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정 교생의 경우 실습 학교에서 교생을 위한 도움이 부족하다는 점에

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또 최 교생의 경우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참관을 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확일적으로 정하지는 않더라도 참관과 수업의 횟수가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지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이 과다하다는 것도 교생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 교생들은 교육 실습록을 작성할 때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작성해야하는 내용이 과다하여 어려움을 느꼈고, 이에 대해 ‘문서 작성하는 기계’(정 교생)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정 교생과 최 교생의 경우 수업 준비를 하면서 차시별로 6쪽의 수업지도안 작성, 파워포인트, 활동지 등을 제작해야 했다. 그리고 매일 작성하는 교생 일지는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 학급 조회 사항, 학생 종례 상황, 4회의 참관 및 실제 수업, 학급 운영의 관찰, 교과 협의회 사항 및 소감, 학급 협의회 사항 및 소감, 기타의 항목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야 했다. 최 교생은 교육 실습 자체는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교육 실습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며 4주 간의 기간이 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교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서의 작성에 치중하게 되는 형식적인 절차는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교육 실습 제도 전체와 기간 중의 과정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4. 교생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

교생들을 처음으로 수업을 실제 하게 되면서 자신이 학창 시절 경험한 수업의 교사, 수업 참관을 한 수업의 교사, 함께 교육 실습을 하고 있는 동료 교생, 지도교사 등 다양한 교사들을 모델링하게 된다. 정 교생의 경우 ‘여기저기 요소를 짜깁기한 거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모델링의 대상 중 교육 실습에서 교생의 성장에 많은 영향

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지도교사이다.

교생들은 지도교사를 모델링하며 스스로 학습하기도 하고 지도교사의 조언을 받으며 자신의 수업을 수정해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지도교사의 지도 방법은 역할모델형과 적극지도형으로 정미재·정제영(2012)에서는 성공적인 교육 실습을 위해 바람직한 지도교사의 지도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생의 경우 지도교사를 통해 수업 목표의 중요성, 수업의 전체 흐름, 수업의 내용 구성, 학생들의 인성 교육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박 교생의 경우에도 수업을 하고 난 후 지도교사의 조언을 반영하며 수업의 방법들을 수정해 나갔다.

일단, 수준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중학교 졸업한지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애들 수준이 어떤 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 같은 ‘역설하고 있다.’ 뭐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도, 역설 처음에 1차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역설하고 있다. 역설하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요런 거 단어 애들은 잘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준이 제가 생각하는 거 보단 더 낮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선 많이 깨달았죠. (박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네, 처음에 도입 부분이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사진 같은 거 ppt를 보여줬었거든요. 하면서, 제가 일단 판서에 자신이 없어서 가지고 글씨를 안 썼거든요. 첫 시간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부분, 요런 지금 육식 위주의 식사에 대한 문제 제기 요런 것들을 말로 하면은 애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요런 부분은 적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박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지도교사의 조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수업의 기술들은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 설명하기, 학습을 돕기 위한 판서 방법과 같이 사소한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수업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교육 실습의 큰 수확일지도 모른다. 서적에서 읽은 이론으로, 강의실에서의

설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방법의 지식,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실천적 지식을 교육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교생들의 수업 역량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 실습을 나오기 전에 예비 교사들은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교사가 될 준비를 해 왔다.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 수업에서 도움이 되었는데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최 교생의 경우 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교직 관련 과목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수업을 하면서는 교수법 관련 강의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최 교생은 이러한 강의와 실습과의 차이를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교수법 관련 수업들이 교직 쪽에 배정이 돼 있긴 한데, 글썄 그거는 이제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론이랑 실제는 다르다.’ 쪽인 거 같아서. 네. 때로는 직접 교수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학습자 중심의 반응 중심 교수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는 그게 도움이 됐다가,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뭐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달할지 같은 거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직접적으로 와 닿았던 거는 잘 없던 거 같아요. (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아이들을 뭘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구, 수업에서 질문을 짤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한다는 부분을 대학에서는 거의 배운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국문과 대학원이라면 마음에 들었겠지만 교육대학원이라 제가 기대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족된 것 같지는 않아요. (서 교생 면담 자료 중에서)

교생들은 교육 실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받은 교사 양성 교육의 한계점에 대해 체감하게 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양성교육이 이론 중심적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나와 교사로서 수업을 실제로 하게 될 때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생들이 체감하는 이러한 괴리감은 이론이 실제 수업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교사양성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V. 결론

앞에서 살펴본 교육 실습에서 교생의 수업 역량의 성장과 관련된 요인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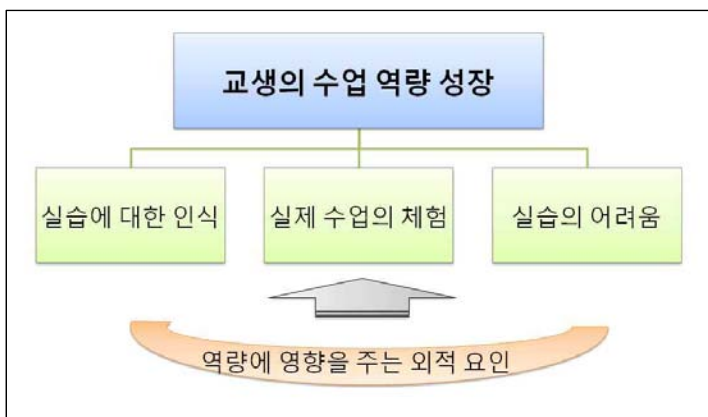


그림 2. 교생의 수업 역량 성장 관련 변인

교육 실습을 통해 국어과 예비 교사들은 수업 역량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실습에 대해 교생들은 부담과 기대라는 인식을 갖고 임하게 된다. 또한 실습 중의 여러 과정 중 수업 역량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은 실제 수업의 체험이다. 그러나 교생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내적으로는 교생이라는 위치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외적으로는 환경적인 요인들에서 발생한다. 실습 과정에서 교생의 수업 역량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지도교사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강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도움을 주지만 이를 실제 활용하는 방식에서 도움 여부와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교육 실습에서 수업 역량을 중심으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교사 양성 교육과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구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생의 수업 역량 성장을 위해서는 실습 과정과 관련 환경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 역량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수업 체험이다. 수업 참관은 학교 현장을 보는 기회라는 점에서 교육 실습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나타났다. 교생들은 실제 수업 시연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학습자를 실제 만나고 교사의 수업 실행을 직접 본다는 점에서 참관은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업 참관의 횟수만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업을 관찰하는 눈, 수업 분석 기술을 익히고 본인의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참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교수 방법을 포착할 수 있고, 교실의 수업 실행을 해석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생이 실습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교육 실습의 과정에서 서 교생은 학습 목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최 교생은 조별 활동에서 학생들을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기도 하다. 지도교사들이 교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교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수업 역량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지고 실습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수업지도안 작성법, 수업을 목표 중심으로 구성하기와 같은 능력은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인데 이러한 기초부터 지도를 해야 한다는 점(서 교생의 지도교사 면담 자료 중에서)이 지도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교생들은 실제 실습을 하기 전에 수업 참관 방법, 수업 준비 과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은 수업 시연 등을 통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습 전에 수업 역량의 바탕이 되는 능력이 신장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기본을 갖춘다면 실습 기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생들이 실습 전에 실습 과정과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생 경험자들의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 교육 실습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수업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역량들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교사 양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실습 학교에서도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체계화,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실습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되 개별 학교에 따라 교육 실습의 경험에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수업의 참관 기회 제공, 수업 참관과 수업 시연의 최소 횟수, 수업 시연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실습 중 수업 시연은 동일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며 지도교사에게 수정을 받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생들은 수업을 여러 차시 준비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며 동일 수업을 반복하며 수정을 하면서 수업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생 지도교사에 대한 도움과 지원도 필요하다. 교생의 수업 역량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도교사이다. 그런데 지도교사에게 교생 지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도교사도 교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끼며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박 교생의 지도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부분,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점, 교생이 실시한 수업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학생들에게 정리해 주어야 하는 수업 지도상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교육 실습 과정을 통해 국어과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수업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기회가 예비 교사들에게 더욱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 교사 자신, 대학, 실습 학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우선 되어야 한다. 교육 실습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습 과정이 수업 역량 중심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을 잘 하는 것은 교사에게 핵심이 되는 역량이다. 실습을 통해 수업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생의 수업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중심으로 실습 과정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5.11.02. 투고되었으며, 2015.11.02. 심사가 시작되어 2015.12.0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경희(2009), 「중등 과학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에서 겪는 어려움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9(5), 한국과학교육학회, 580-591.
- 김정현·강명숙·왕석순(2009), 「예비 중등교사의 교육실습이 교사로서의 자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4), 한국과학교육학회, 55-70.
- 김필성·강현석(2014), 「중등학교 예비교사의 실습 경험에 대한 내용 분석: A대학교 중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실습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0(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1-78.
- 박성혜(2007), 「교육 실습을 통한 중등 예비 교사들의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결과기대감의 변화」,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한국교원교육학회, 271-297.
- 박인옥(2007), 「중등 사회과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에 관한 인식 조사」, 『시민교육연구』 39(3),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85-212.
- 박정서(2012), 「사회과 예비교사가 교육실습과정에서 경험한 수업실천과 그 반성에 대한 이해」, 『한국교원교육연구』 29(3), 한국교원교육학회, 71-100.
- 박철용·민희정·백성혜(2008), 「교육실습을 통한 예비 과학교사의 교수내용 지식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8(6), 한국과학교육학회, 641-648.
- 서재복(2010), 「중등학교 교육실습생의 교육실습 인식 및 자기평정도 분석」, 『교육종합연구』 8(1), 교육종합연구소, 43-65.
- 설규주(2011), 「교생의 수업관찰 및 면담을 통한 사회과 수업관련 경험과 인식 연구」, 『사회과교육』 50(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69-91.
- 안미리·조인진(2004), 「교육실습 중 중등 예비 교사들의 갈등요인 측정도구 구안」, 『한국교원교육연구』 21(3), 한국교원교육학회, 163-182.
- 염지숙(2003), 「유아교육실습: 예비교사들의 경험 이야기」, 『한국교원교육연구』 20(2), 한국교원교육학회, 223-248.
- 윤현수(2012), 「중등 체육교육실습생이 실습수업에서 겪는 사고변화 과정」, 『교과교육학연구』 16(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145-168.
- 이경화(2008),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실습에 나타난 반성적 사고 내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22.

- 이혁규·심영택·이경화(2003), 「초등 예비 교사의 실습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6(1), 한국교육인류학회, 141-197.
- 임천택·김은경(2009), 「초등교육 실습생의 국어과 수업 저널 쓰기 적용 사례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68-304.
- 정미재·정제영(2012), 「교육실습이 예비교사의 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한국교원교육학회, 63-83.
- 정혜승(2011), 「수업에 드러난 교사의 문식성 인식과 학생의 정체성 협상 양상: 예비 초등교사의 국어과 심화 수업 실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34.
- 정혜영(2004),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기대와 평가, 교육실습을 통한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한국교원교육학회, 209-230.
- 정한호(2013), 「교육실습 지도교사에 대한 중등 예비교사의 인식 탐색」, 『교육문제연구』 47,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77-114.
- 정호진(2012), 「교육실습 현장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의 시선 속 체육수업 담론에 대한 푸코적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4), 한국초등체육학회, 27-39.
- 천은숙(1995), 「교육실습을 통한 교사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갑식(2015), 「수업실습을 통해 본 초등예비교사의 반성 내용과 수준에 대한 고찰」, 『한국교원교육학회』 32(1), 한국교원교육학회, 201-229.
- 최지현·서혁·심영택·이도영·최미숙·김정자·김혜정(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도서출판 역락.
- 황은희·백순근(2008), 「중등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의 비교연구」, 『교육평가연구』 21(2), 한국교육평가학회, 53-74.
- Applegate, J. H. (1986).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field experience: Towards a framework for study. In J. D. Rath & L. G. Katz (Eds.). *Advants in Teacher Education Vol. 2*, Norwood, NJ: Ablex.
- Tardif, C. (1988). The development of perspectives towards teaching in practicum. In P. Holborn, I. H. Andrews & M. Wideen (Eds.). *Becoming a teacher*. Toronto, ON: Kagan And Woo.

초록

교육 실습에서 국어과 예비 교사의 수업 역량 성장 연구

류보라 · 백혜선

이 연구는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교육 실습을 통해 수업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3개 중등학교에서 실습한 4명의 교생이며 연구 자료는 관찰 자료, 면담 자료,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업 참관, 교생 면담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교생 4인의 교육 실습에 대한 자료들에서 추출한 중심어는 ‘교생의 수업 역량 성장’으로 관련 변인은 교육 실습에 대한 인식, 실제 수업의 체험, 교육 실습의 어려움, 교생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 등 네 범주이다.

교육 실습을 통해 국어과 예비 교사들은 수업 역량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교생들은 부담과 기대라는 인식을 갖고 실습에 임하며, 수업 역량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은 실제 수업의 체험이다. 그러나 실습 과정에서 교생은 내적으로는 정체성의 혼란, 외적으로는 환경적인 요인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업 역량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은 지도교사와 대학에서의 강의이다.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수업 역량 향상을 위해 수업 역량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교사 양성 교육과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어 예비 교사, 교육 실습, 수업 역량, 정체성, 실천적 지식

ABSTRACT

The Teaching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Student Teachers in Practice Teaching

Ryu, Bora & Paik, Hyesu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develop the teaching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student teachers and explore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ir practice teach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four student teachers at three secondary school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observations, interviews, and documents. The primary data are from observations of instruction and interviews with the student teachers.

The key term extracted from the data of the four student teachers is “growth of the teaching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student teacher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practice teaching are the perception of practice teaching, experience of real instruction, experience of problems, and factors related to teaching competence.

The teaching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student teachers develops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practice teaching. Student teachers expect to practice teaching and have the responsibility to do so, and the experience of giving real instruction is most related to the growth of their teaching competence. However, student teachers experience problems stemming from the confusion of their internal identity and external environmental effects. The teachers’ instructors and university lectures are environmental effects.

To foster the growth of Korean language student teachers’ teaching competence, the education of student teachers and practice

teaching should ensure internal stability focused on teaching competence.

KEYWORDS student teacher, practice teaching, teaching competence, identity, practice knowledge